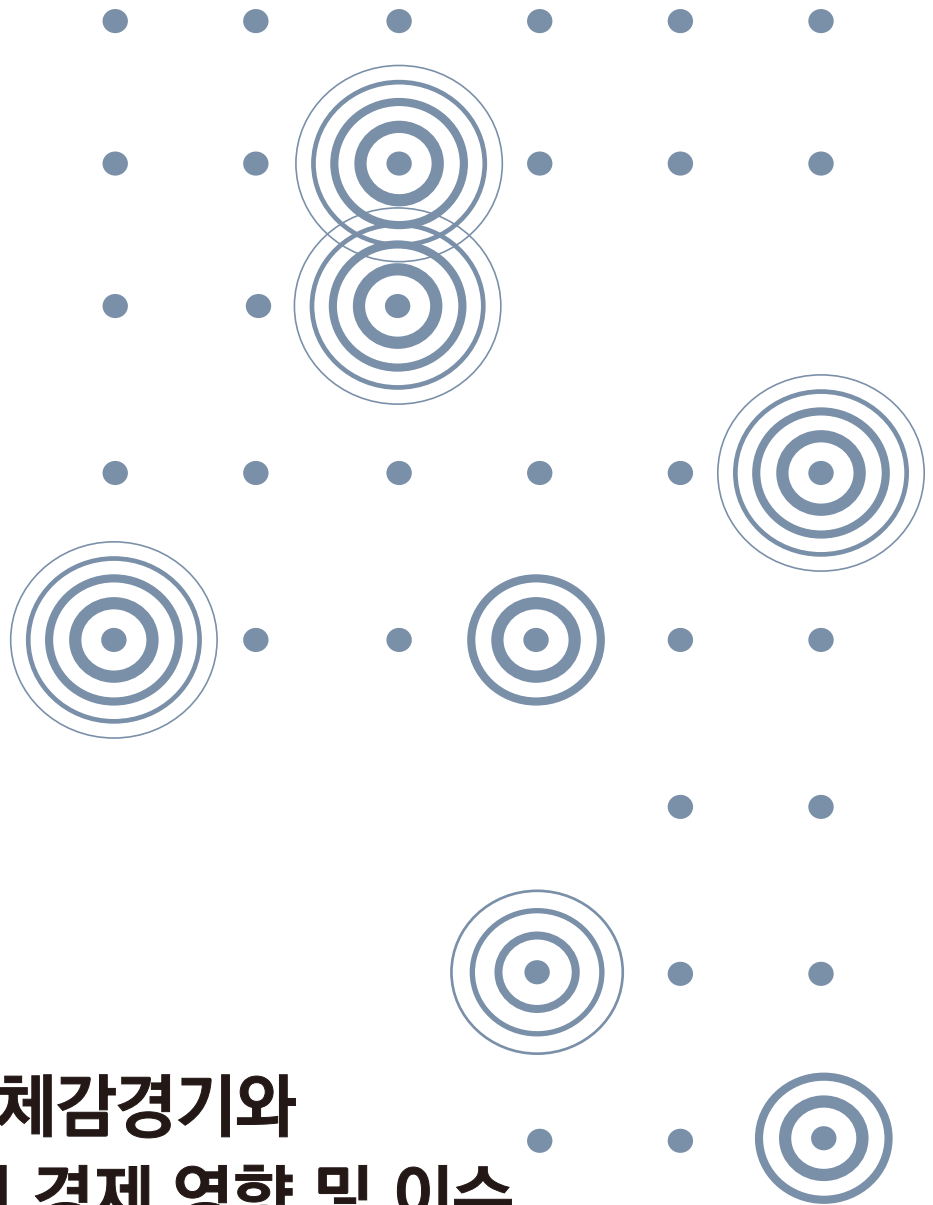


정책리포트

제296호 2020. 3. 23



1/4분기

#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1대 총선 관련 경제 영향 및 이슈

최 봉

선임연구위원

오승훈

연구원

—————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제296호**

1/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1대 총선 관련 경제 영향 및 이슈

**발행인** 서왕진

**편집인** 최 봉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http://www.si.re.kr)

**ISSN** 2586-484X

**발행일** 2020년 3월 23일

---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1/4분기

##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21대 총선 관련 경제 영향 및 이슈

최 봉 선임연구위원  
02-2149-1059  
cbong@si.re.kr

오승훈 연구원  
02-2149-1355  
shoh0507@si.re.kr

요약	3
Ⅰ.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4
Ⅱ. 서울의 1/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7
Ⅲ. 시민 관심 경제 이슈: 총선 관련 경제 영향 및 이슈	19
부록: 2020년 1/4분기 주요 조사결과	24

## 요약

---

### 서비스업생산은 증가, 제조업생산은 큰 폭 하락

2019년 4/4분기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18.3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하였다. 「제조업생산지수」는 93.9로 전년 동월 대비 8.9% 하락하며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이 -9.2%를 기록하였다. 대표적 내수지표인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20년 1월 전년 동월 대비 4.7% 상승하였고, 「백화점 판매액지수」(4.4%)와 「대형마트 판매액지수」(5.3%)도 모두 증가하였다. 2020년 2월 중 서울의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2.9% 증가한 510만 3천 명인 반면,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2.6% 감소한 85만 명을 기록했다.

### 서울시민 체감경기지수는 전 분기보다 하락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20년 1/4분기 82.8로 전 분기 대비 10.5p 감소했다.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요소인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11.2p 하락한 73.7이며, 「미래생활형편지수」도 전 분기보다 3.7p 하락한 85.4를 기록했다.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 대비 19.1p 대폭 하락한 47.9, 「미래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 대비 11.1p 하락한 67.8로 조사되었다. 「현재소비지출지수」는 101.8로 전 분기 대비 10.8p 하락하였으며, 「미래소비지출지수」도 전 분기 대비 6.2p 하락한 89.9를 기록했다. 서울시민의 「주택 구입태도지수」와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모두 전 분기보다 하락하였다. 「순자산지수」는 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하였지만, 「고용 상황전망지수」와 「물가예산지수」는 하락하였다.

### 서울시민이 총선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분야는 ‘산업/경제’, ‘일자리/취업’, ‘보건/복지’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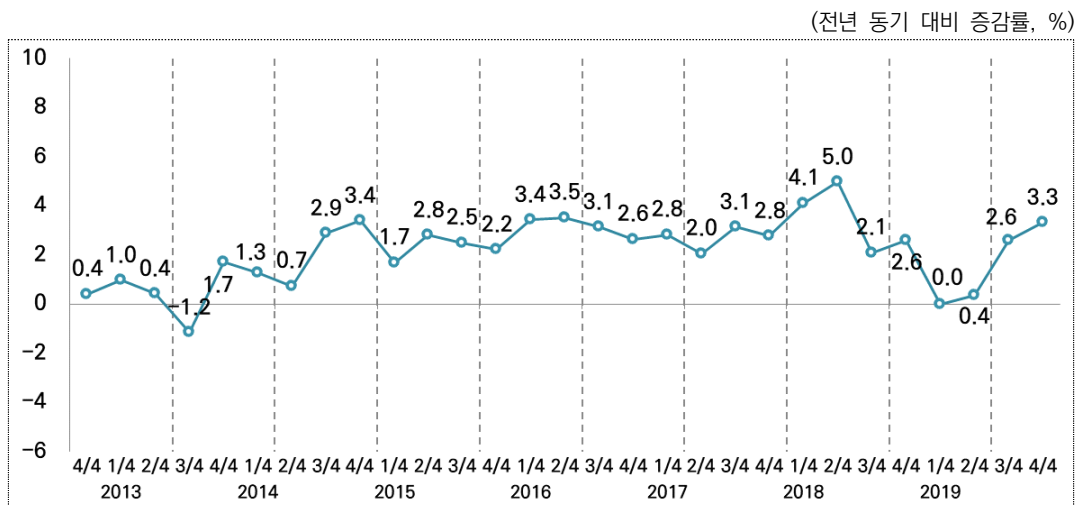
서울시민은 21대 총선이 서울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높을 것(40.2%)으로 예상하지만, 영향의 방향은 증립(49.8%)이나 악화(24.7%)로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 총선이 미치는 파급력이 높다고 응답한 분야는 ‘건강보장’(35.4%), ‘주택가격 수준’(32.9%), ‘생활물가 수준’(27.8%), ‘청년실업 및 고용여부’(27.4%) 순이었다. 총선이 미치는 파급력을 호전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분야는 ‘복지수준’(17.0%), ‘주택가격 수준’(14.7%), ‘건강보장’(13.4%)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서울시민은 총선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 ‘산업/경제’(25.6%)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기준으로는 ‘일자리/취업’(56.5%)을 가장 많이 선택해 산업/경제와 일자리/취업에 대한 시민의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I.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 I 서비스업생산은 증가, 제조업생산은 큰 폭 하락

2019년 4/4분기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3% 증가

- 2019년 4/4분기 서울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18.3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
  - 「서비스업생산지수」는 4/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하며 전 분기(2.6%)보다 상승
  - ‘부동산업’(9.9%)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6%), ‘정보통신업’(7.5%) 등도 비슷하게 증가
  - 반면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2.7%를 기록해 가장 크게 하락하였으며, ‘교육 서비스업’(-0.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0.1%) 등도 하락
- 2020년 1월 중 서울의 「제조업생산지수」는 93.9로 전년 동월 대비 8.9%의 큰 폭 하락
  - 「제조업생산지수」는 2020년 1월 전년 동월보다 8.9% 감소하며 2018년 12월부터 1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기록
  - 2019년 7월 전년 동월 대비 -1.2%를 보인 이후 감소율이 점차 커지는 추세로,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이 -9.2%를 기록하며 하락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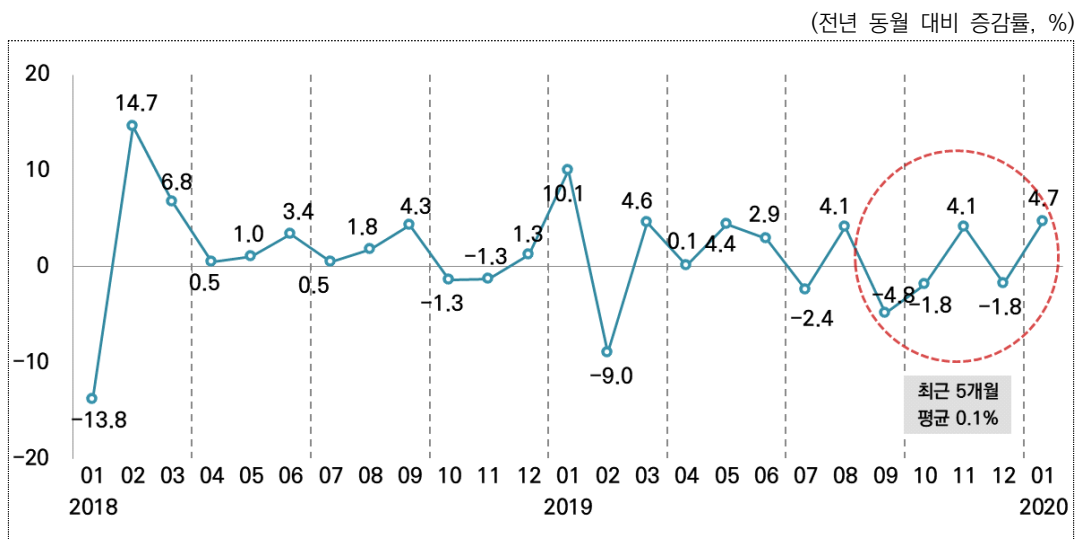
[그림 1]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 증감률(불변지수)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sup>1)</sup>

1) 2019년 1월 공표 시 연쇄지수 작성방법에 따른 최근 가중치 변경 및 연간보정, 계절조정 작업으로 2000년 이후 시계열이 변경되었다. 최근 분기나 월별 수치에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추후 수정될 수 있으며, 매년 1분기나 1월분 통계 공표 때 연간보정 때문에 최근 몇 개년 자료가 수정될 수 있다.

## 대표적 내수지표인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상승

- 2020년 1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sup>2)</sup>는 106.6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 상승
  -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19년 11월 4.1% 증가한 이후 12월에 1.8% 하락과 2020년 1월 4.7% 상승을 오가며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 0.1% 기록
- 부문별로 보면, 1월 중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도 5.3% 증가하는 등 3개 지수가 모두 상승
  -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105.4로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였으며, 기준치 100을 상회하는 등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 1.3% 기록
  -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108.7로 전년 동월 대비 5.3% 증가하며 2019년 10월 이후 등락을 반복하였고,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은 -2.3%
  -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백화점 판매액지수」, 「대형마트 판매액지수」 모두 기준치 (100) 이상인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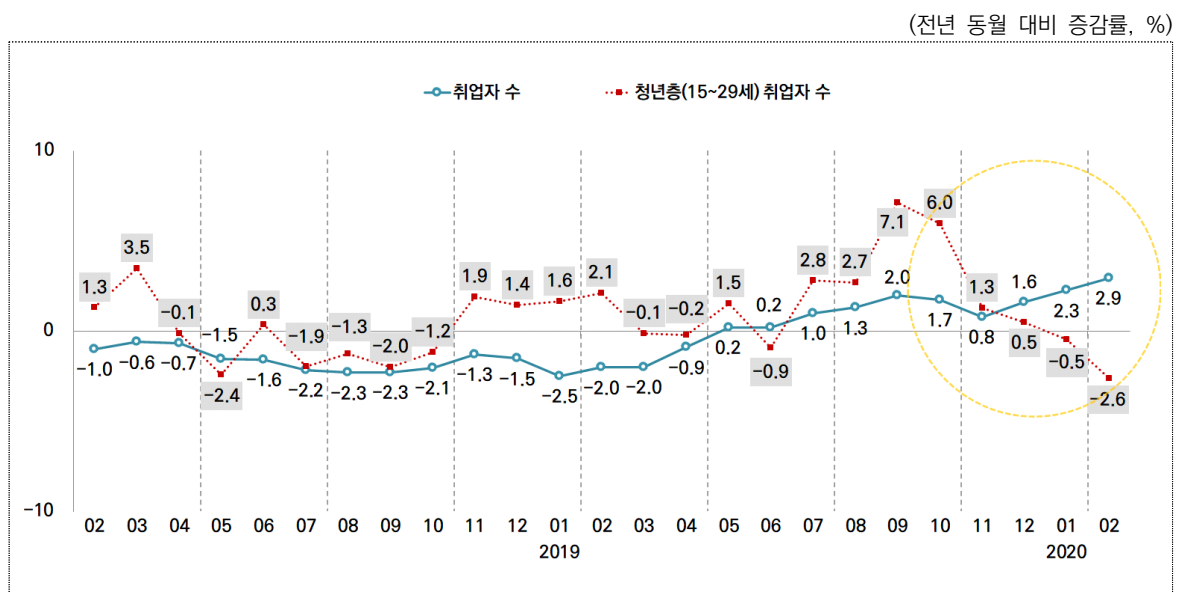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증감률(경상금액)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2)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를 비롯해 제조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모두 기준연도가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바뀌면서 변경 이전의 수치가 바뀌었다.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0년 기준에는 대형마트에 대형할인점, 면세점, 아웃렛이 포함되었지만, 2015년 기준부터 대형마트에서 면세점과 아웃렛이 제외되었다.

## 전체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증가했지만 청년층 취업자 수는 감소

- 2020년 2월 서울의 전체 「취업자 수」<sup>3)</sup>는 510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495만 8천 명)보다 2.9% 증가
  -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본 전체 「취업자 수」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0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은 1.9%를 기록
- 2020년 2월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87만 3천 명)보다 2.6% 감소한 85만 명으로 조사
  - 전년 동월 대비 「청년층 취업자 수」는 -2.6%의 증가율을 보여 전체 취업자 수 증가율보다 낮았으며,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은 0.9%를 기록
  -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19년 10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2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며, 특히 2월 -2.6%의 증가율을 보이며 하락세 가속
-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으나, 청년층 취업자 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



[그림 3] 서울의 취업자 수 증감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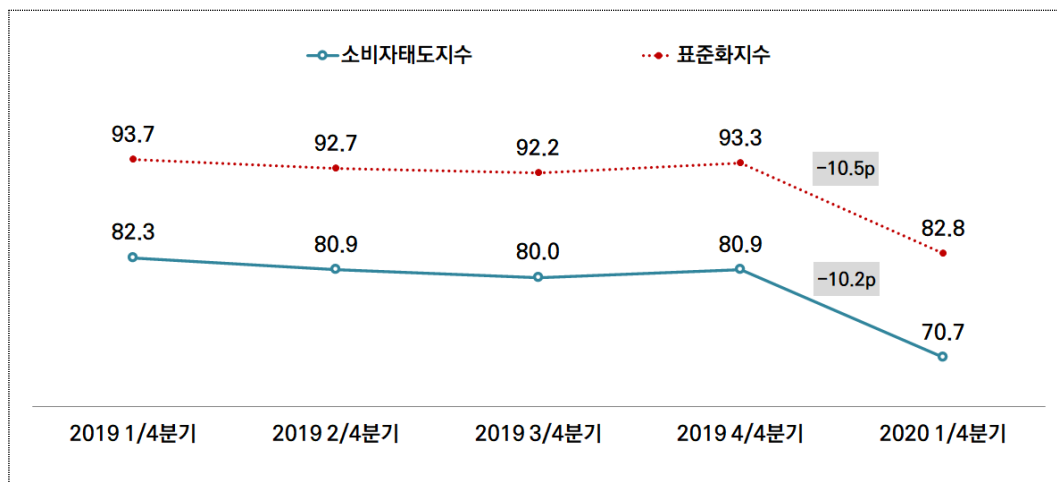
3) 고용통계는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 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하였다.

## II. 서울의 1/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 I 서울시민 체감경기지수는 전 분기보다 하락

#### 1/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큰 폭으로 하락

- 2020년 1/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표준화지수<sup>4)</sup> 기준 82.8로 전 분기 대비 10.5p 감소
  - 「소비자태도지수」의 표준화지수는 전 분기보다 10.5p 대폭 감소한 82.8 기록
  - 연 가구소득별로는 2,4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전 분기 대비 13.0p 내려 가장 크게 하락
  -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하락한 가운데 50대가 14.3p로 가장 많이 하락
- 1/4분기 이후 올해 서울시민의 「소비자태도지수」는 당분간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
  - 「소비자태도지수」의 추세는 지속적으로 민생과 직결된 경기상황, 고용지표 등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 왔기에, 코로나19 영향 본격화 등으로 인한 경기 및 고용 침체, 소비 위축 등이 이어진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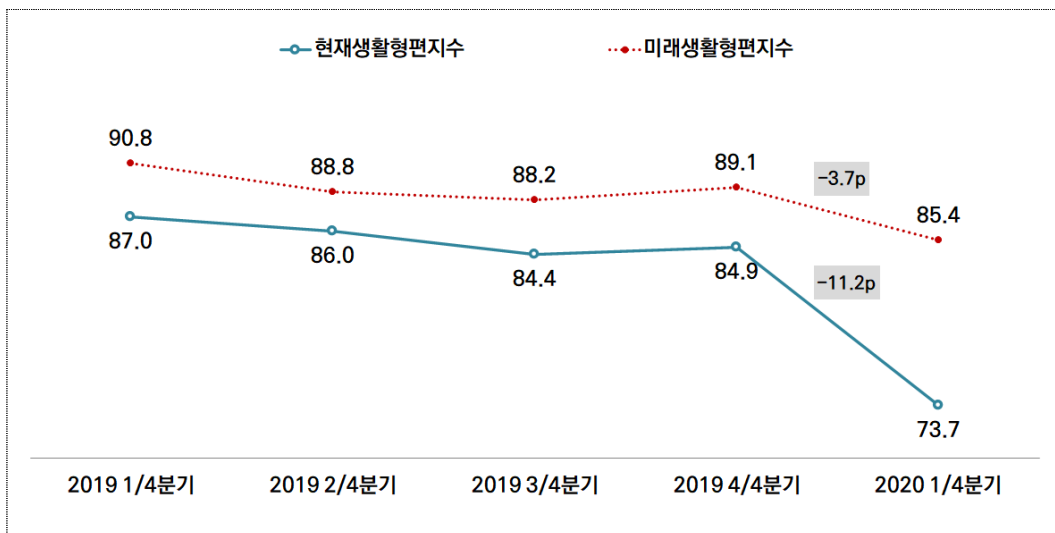
[그림 4]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

4) 표준화지수란 개별지수(5개 항목)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 단순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연도별로 조사되는 시계열의 결과값이 성별, 가구 수, 직업 등의 인구통계적 요인에 따라 분기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표준화한 값을 구한다.



## 현재생활형편지수·미래생활형편지수 모두 전 분기보다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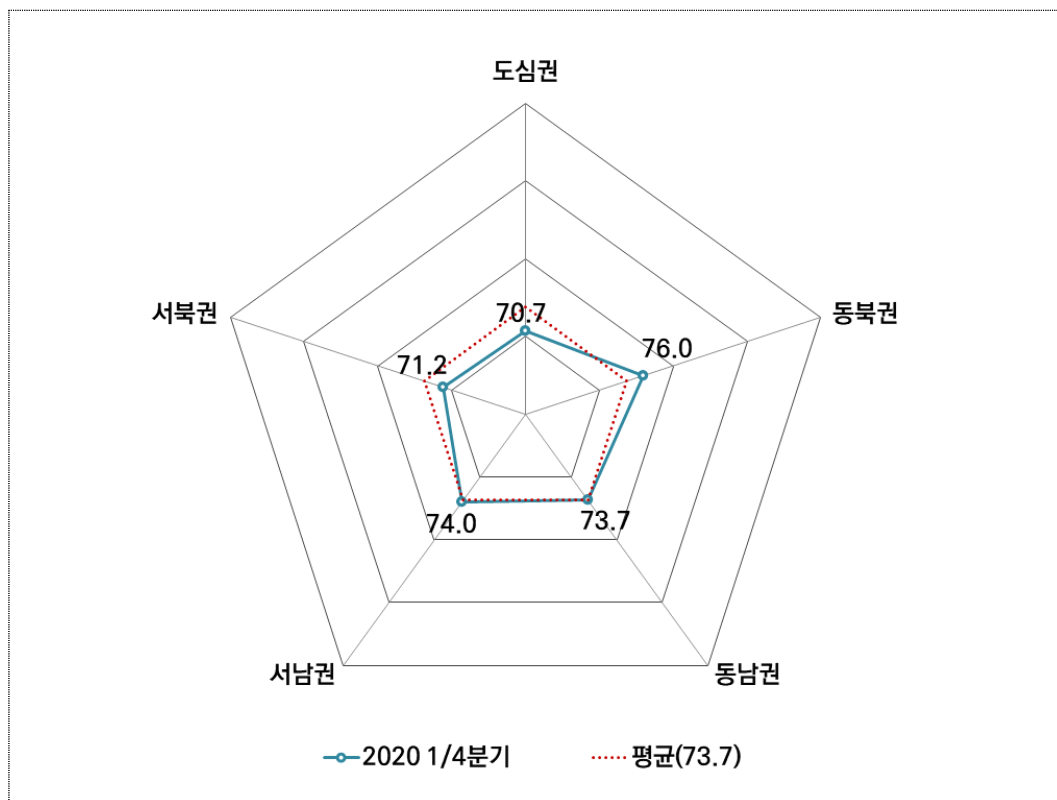
- 2020년 1/4분기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보다 11.2p 하락한 73.7이며, 「미래생활형편지수」도 전 분기 대비 3.7p 하락한 85.4를 기록
  -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연 가구소득 2,400~3,600만 원 미만 가구만 「현재생활형편지수」, 「미래생활형편지수」가 각각 4.3p, 4.4p 상승
  -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에서 「현재생활형편지수」, 「미래생활형편지수」가 하락하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미래생활형편지수」가 감소하는 경향
- 1년 후 가구 생활형편이 악화될 것으로 본 주된 이유 1순위는 경기 불황
  - ‘경기 불황’이 50.4%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가계소득 감소’(21.6%)로 나타나 ‘가계소득 감소’가 1순위였던 전 분기와 차이
  - 그다음은 ‘물가 상승’(10.6%), ‘지출비용 증가 예정’(4.9%), ‘가계부채 증가’(3.3%) 등의 순으로 응답
  - 연 가구소득별로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경기 불황’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
  - 연령별로도 ‘경기 불황’이 모든 연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60대에서 57.0%로 높은 것으로 조사



[그림 5] 서울의 생활형편지수

## 현재생활형편지수는 동북권이 제일 높고, 도심권이 가장 낮게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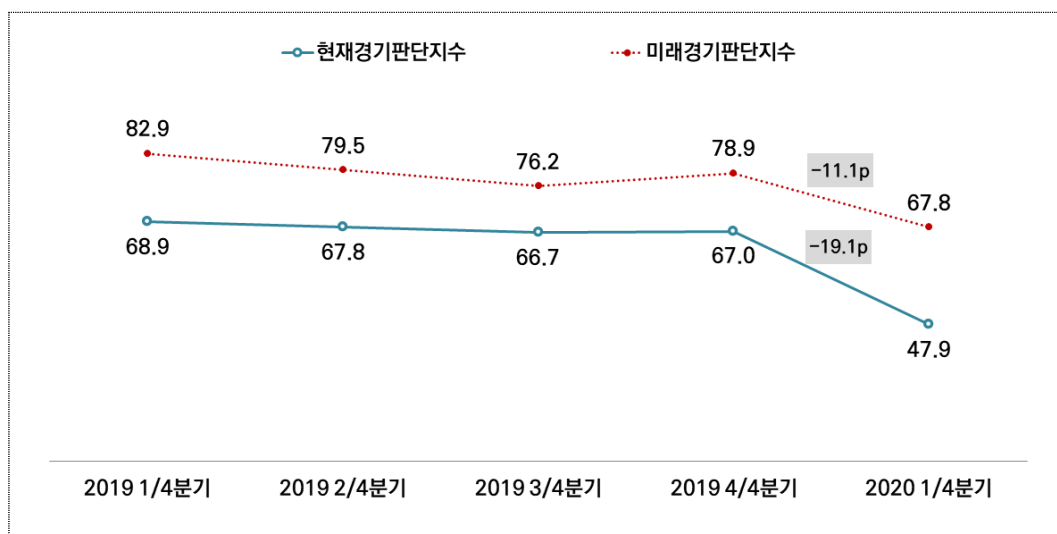
- 2020년 1/4분기 서울의 권역별 「현재생활형편지수」는 동북권이 76.0으로 가장 높게 조사
  - 그다음은 서남권(74.0), 동남권(73.7), 서북권(71.2), 도심권(70.7)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모든 권역이 70대 기록
- 2020년 1/4분기 서울의 권역별 「현재생활형편지수」에서 동남권이 2019년 4/4분기 대비 13.6p 내려 가장 크게 하락
  - 동남권이 13.6p 내린 가운데 서북권도 12.4p 대폭 하락
  - 서남권(-11.7p), 동북권(-8.0p), 도심권(-7.1p) 순으로 하락 폭이 컸으며, 모든 권역이 전 분기 대비 하락한 것으로 조사



[그림 6] 서울의 권역별 현재생활형편지수

## 현재경기판단지수·미래경기판단지수 모두 전 분기보다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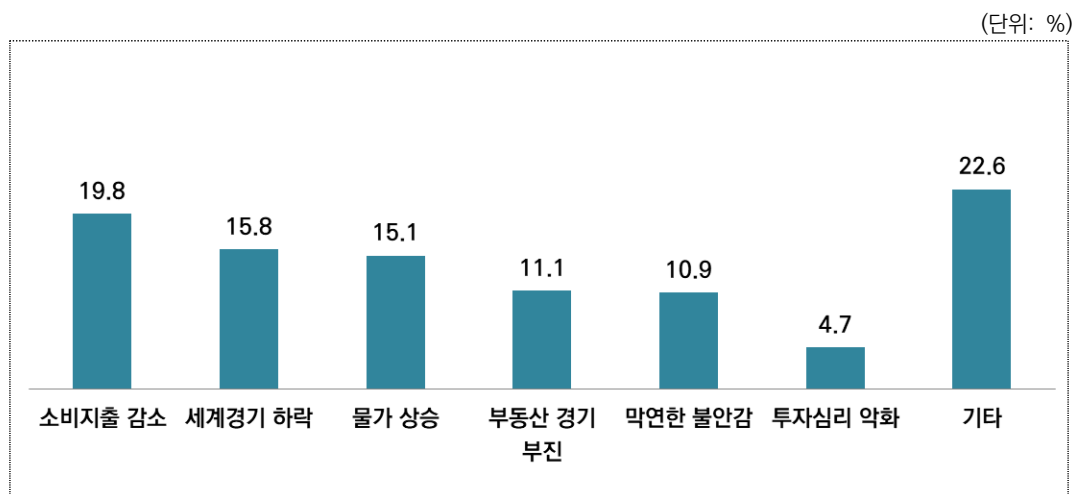
- 2020년 1/4분기 서울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47.9로 전 분기 대비 19.1p 하락
  - 2019년 4/4분기에 소폭 상승하며 반등한 「현재경기판단지수」는 2020년 1/4분기에 다시 하락으로 전환하였는데, 특히 40대로 급하강한 수준을 기록
  -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서울의 제조업 생산 하락 폭을 서비스업 생산 증가가 상쇄하지 못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
  - 연 가구소득별로는 4,800~6,0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전 분기 대비 22.4p 내려 가장 크게 하락하였고, 3,600~4,800만 원 미만 가구 역시 20.7p 낮아져 큰 폭으로 하락
  - 연령별로 본 「현재경기판단지수」는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전 연령대에서 전 분기 대비 하락한 가운데 50대(-26.5p)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
- 2020년 1/4분기 서울의 「미래경기판단지수」는 67.8로 전 분기 대비 11.1p 하락
  - 지난 분기 소폭 상승하며 반등한 「미래경기판단지수」는 2020년 1/4분기에 다시 하락으로 전환
  - 연 가구소득별로는 모든 가구에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7,200만 원 이상 가구가 13.8p 내려 가장 크게 떨어졌고, 4,800~6,000만 원 미만 가구의 하락 폭(-3.7p)이 가장 작은 것으로 조사
  - 연령별로 본 「미래경기판단지수」 역시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50대가 전 분기 대비 15.1p 낮아져 가장 크게 하락



[그림 7] 서울의 경기판단지수

##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주된 이유는 소비지출 감소, 세계경기 하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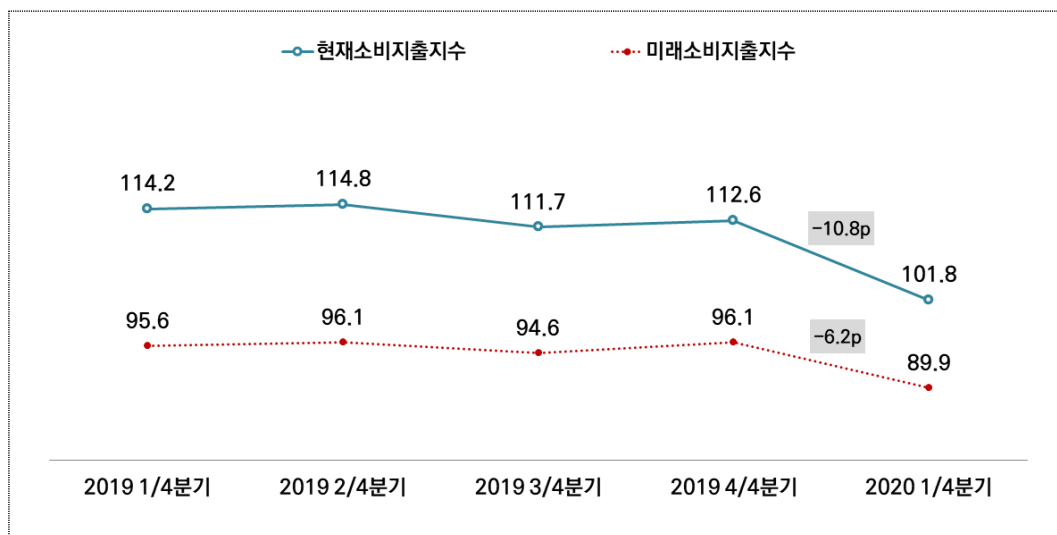
- 1년 후 서울지역 경기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는 이유는 주로 ‘소비지출 감소’, ‘세계경기 하락’, ‘물가 상승’ 등으로 조사
  - ‘소비지출 감소’가 19.8%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세계경기 하락’(15.8%), ‘물가 상승’(15.1%) 순으로 조사
  - ‘투자심리 악화’(4.7%)를 제외하고는 모두 10%대로 비슷한 수치를 기록
- 소득수준과 연령대별 조사에서 대체로 ‘소비지출 감소’를 가장 큰 악화 전망 이유로 지목
  - 연 가구소득별로는 3,600~4,8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소비지출 감소’가 2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00~7,200만 원 미만 가구는 유일하게 ‘세계경기 하락’(21.0%)이 ‘소비지출 감소’(14.5%)보다 높게 조사
  -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에서 ‘소비지출 감소’가 2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물가 상승’이 21.8%로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
  - 60대에서는 ‘막연한 불안감’이 16.6%로 ‘소비지출 감소’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
- 2020년 2월 서울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9%로 전월보다 낮았으나, 전년 동월 0.7% 보다는 0.2%p 소폭 상승
  - 서울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기준): 2019년 10월 0.4% → 11월 0.4% → 12월 0.9% → 2020년 1월 1.5% → 2월 0.9%



[그림 8] 1년 후 서울지역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이유

##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와 미래소비지출지수 모두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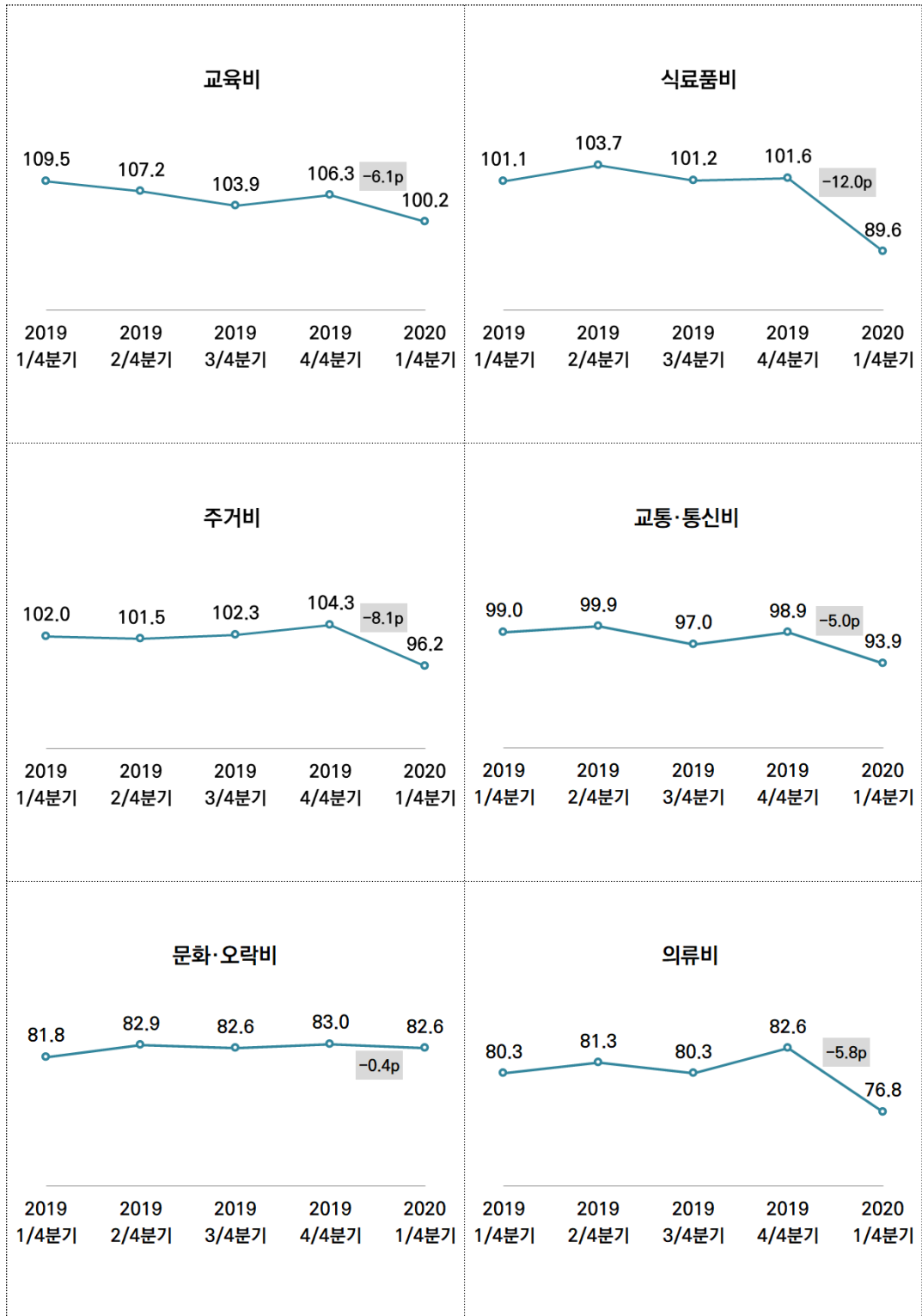
- 2020년 1/4분기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101.8로 전 분기 대비 10.8p 하락
  - 지난 분기 소폭 상승하였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1/4분기 10.8p 내려 대폭 하락하였으나 기준치(100) 이상을 유지
  - 연 가구소득별로는 6,000~7,2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현재소비지출지수」가 전 분기 대비 20.0p 낮아져 가장 크게 하락하였으며, 2,400원 미만과 2,400~3,600만 원 미만 가구는 각각 0.9p, 8.2p 상승
  - 연령별로 본 「현재소비지출지수」는 전 연령대에서 떨어진 가운데 40대 가구가 -23.5p로 가장 크게 하락
- 2020년 1/4분기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89.9로 전 분기보다 6.2p 하락
  - 연 가구소득별로 본 「미래소비지출지수」는 6,000~7,200만 원 미만 가구가 전 분기 대비 8.4p 내려 하락 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
  - 연령별로 본 「미래소비지출지수」는 40대 가구가 전 분기 대비 10.1p 내려 가장 크게 하락하였으며, 그다음은 30대 이하 가구(-9.2p), 50대 가구(-4.5p), 60대 가구(-4.0p) 순으로 조사



[그림 9]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 미래소비지출지수는 모든 품목이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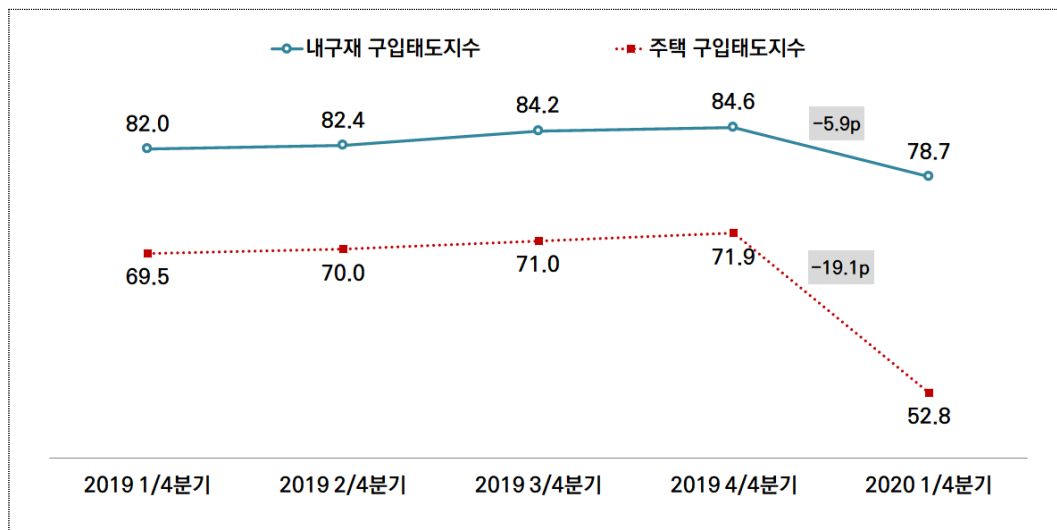
- 2020년 1/4분기 「미래소비지출지수」는 모든 품목이 하락
  - ‘식료품비’ 지수가 전 분기 대비 12.0p 내려 하락 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
  - ‘의류비’ 지수는 76.8로 전 품목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전 분기 대비 하락 폭은 5.8p로 ‘식료품비’(-12.0p), ‘주거비’(-8.1p), ‘교육비’(-6.1p) 다음으로 큰 편
  - ‘교육비’ 지수는 100.2로 전 품목 중 가장 높게 조사
  - ‘교통·통신비’ 지수는 5.0p 하락한 93.9였으며, ‘문화·오락비’는 0.4p 내려 하락 폭이 가장 작은 것으로 조사
- 6개 품목 모두 하락하였으며, ‘문화·오락비’를 제외한 품목의 하락세가 두드러진 상태
  - ‘문화·오락비’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하락 폭이 5.0p 이상으로 가파른 하락세를 시현



[그림 10] 품목별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

## 서울시민의 내구재 구입의사, 주택 구입의사 모두 하락

- 2020년 1/4분기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보다 5.9p 내린 78.7로 하락세로 전환
  - 연 가구소득별로는 「내구재 구입태도지수」가 모든 가구에서 전 분기 대비 하락한 가운데 3,600~4,800만 원 미만 가구가 가장 크게 하락(-12.0p)하였고, 7,200만 원 이상 가구가 하락 폭(-0.5p)이 가장 작은 것으로 조사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내구재 구입태도지수」가 높아지며 전 분기 대비 하락 폭이 낮은 것으로 조사
- 2020년 1/4분기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52.8로 전 분기 대비 19.1p의 큰 폭 하락
  - 연 가구소득별로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모든 가구에서 하락하였으며, 6,000~7,200만 원 미만 가구의 하락 폭이 26.0p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
  - 연령별로 본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60대가 22.8p 내려 가장 크게 하락하였으며, 그다음은 40대(-22.7p), 50대(-18.0p), 30대 이하(-16.7p) 순으로 하락 폭이 큰 것으로 조사
  -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변화가 작았던 작년과 다르게 2020년 들어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해 말 단행한 정부 부동산정책의 영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 2020년 2월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가격 지수는 108.7로 7개월 연속 상승하며 최근 몇 년 중 가장 높은 수치 기록(2019년 10월 106.7 → 11월 107.3 → 12월 108.2 → 2020년 1월 108.6 → 2월 10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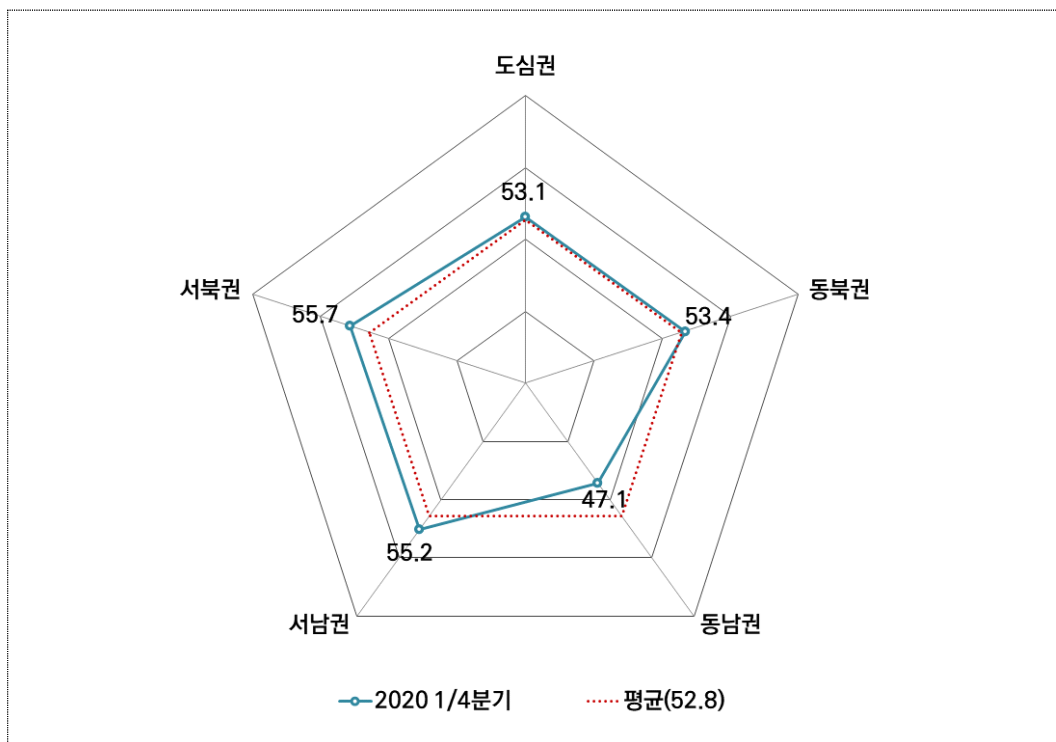


[그림 11] 서울의 내구재와 주택 구입태도지수



## 서울시민의 권역별 주택 구입의사는 모든 권역에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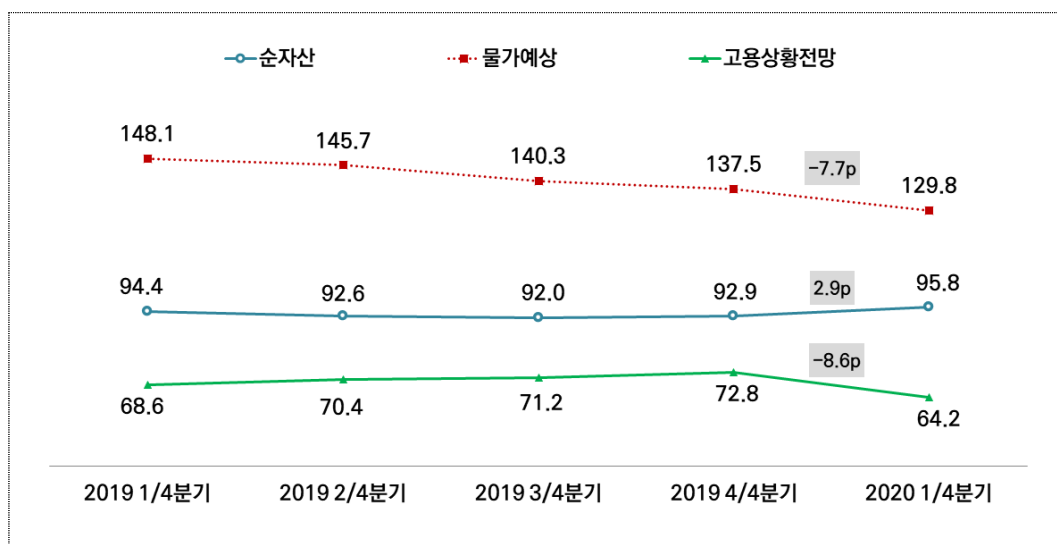
- 2020년 1/4분기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도심권이 전 분기 대비 가장 큰 폭(26.2p)으로 하락
  - 도심권의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53.1로 전 분기 대비 26.2p나 하락하며, 전 권역에서 가장 하락 폭이 큰 것으로 조사
  - 그 외에 동북권이 전 분기 대비 23.3p 하락한 53.4로 나타났으며, 동남권은 17.7p 하락한 47.1로 「주택 구입태도지수」가 가장 낮은 권역으로 조사
  - 서북권은 전 분기 대비 11.5p 하락한 55.7로 하락 폭이 가장 작은 편
- 모든 권역에서 하락 폭이 큰 것으로 조사
  - 모든 권역의 하락 폭이 10~20p대로 큰 가운데 「주택 구입태도지수」 역시 50대 이하를 기록하며 기준치(100)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
  - 특히 동남권의 「주택 구입태도지수」가 40대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그림 12] 서울의 권역별 주택 구입태도지수

## 순자산지수 소폭 상승, 고용상황전망지수와 물가예상지수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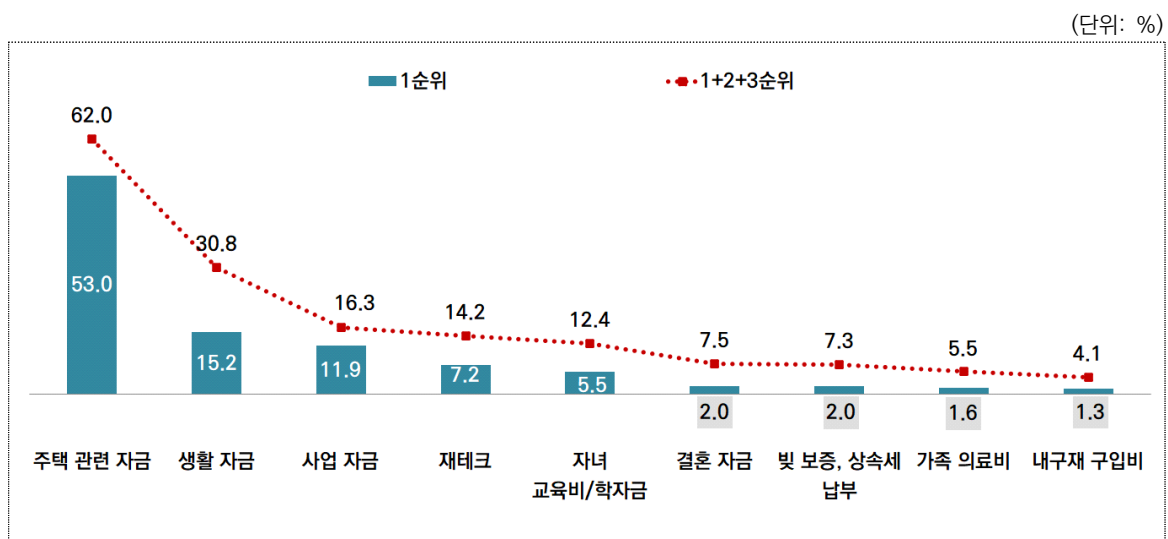
- 2020년 1/4분기 「순자산지수」는 95.8로 전 분기 대비 2.9p 상승
  - 가계의 순자산이 증가한 이유로 ‘부동산이 늘었다’와 ‘소득이 늘었다’ 응답이 각각 33.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금융자산이 늘었다’(18.2%), ‘부채가 줄었다’(13.6%) 등의 순
  - 연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2,4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부동산이 늘었다’는 응답 비율이 61.5%였으며, 4,800~6,000만 원 가구에서 ‘소득이 늘었다’는 응답 비율이 50.0%로 다른 가구에 비해 높게 조사
  - 연령별로는 60대에서 ‘부동산이 늘었다’는 응답 비율이 54.5%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이하의 ‘소득이 늘었다’는 응답이 4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2020년 1/4분기 「물가예상지수」는 129.8로 전 분기 대비 7.7p 하락
  - 「물가예상지수」는 2018년 3/4분기 이후부터 6분기 연속 하락하였으며, 모든 가구소득 계층과 연령대에서 하락한 것으로 조사
  - 연 가구소득별로는 7,200만 원 이상 가구에서 전 분기 대비 13.3p 낮아져 가장 크게 하락
  - 연령별로는 40대에서 전 분기 대비 11.1p 낮아져 가장 큰 폭으로 하락
- 2020년 1/4분기 「고용상황전망지수」는 64.2로 전 분기보다 8.6p 하락
  - 「고용상황전망지수」는 3분기 연속 소폭 상승하다가 2020년 1/4분기에 하락세로 반전
  - 연 가구소득별로는 7,200만 원 이상 가구에서 전 분기 대비 12.3p 낮아져 가장 크게 하락
  - 연령별로는 50대가 15.6p 낮아져 가장 크게 하락하였으며, 연령이 낮아질수록 「고용상황전망지수」가 높아지는 경향



[그림 13] 서울의 순자산지수, 물가예상지수, 고용상황전망지수

## 서울지역의 가계부채 보유 가구 비중은 전 분기보다 하락

- 2020년 1/4분기에 가계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조사 대상 가구의 51.1%로 전 분기 대비 8.0%p 하락
  - 연 가구소득별로는 6,000~7,2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가계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2.1%로 가장 높게 조사
  - 연령별로는 40대가 57.8%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50대(53.0%), 30대 이하(52.4%), 60대(38.4%) 순으로 조사
  - 가계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가구의 연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은 17.3%로 전 분기 대비 3.8%p 하락<sup>5)</sup>
  - 가계부채의 상환 형태는 '원리금 상환'이 61.3%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이자만 상환'(33.2%), '상환 안 함'(5.5%)의 순으로 조사
- 가계부채의 주 사용용도는 '주택 관련 자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1순위 기준으로 '주택 관련 자금'(53.0%)이 가장 많고, 그다음은 '생활 자금'(15.2%), '사업 자금'(11.9%), '재테크'(7.2%), '자녀 교육비/학자금'(5.5%) 등의 순으로 조사
  - 연 가구소득별로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주택 관련 자금'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2,400~3,6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생활 자금' 비중이 21.7%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에서 '주택 관련 자금'이 59.1%로 가장 높게 조사
  - 1~3순위 기준 역시 '주택 관련 자금'과 '생활 자금'이 각각 62.0%, 30.8%로 가장 높았으며, '사업 자금'(16.3%)과 '재테크'(14.2%)도 높은 수준



[그림 14] 가계부채의 주 사용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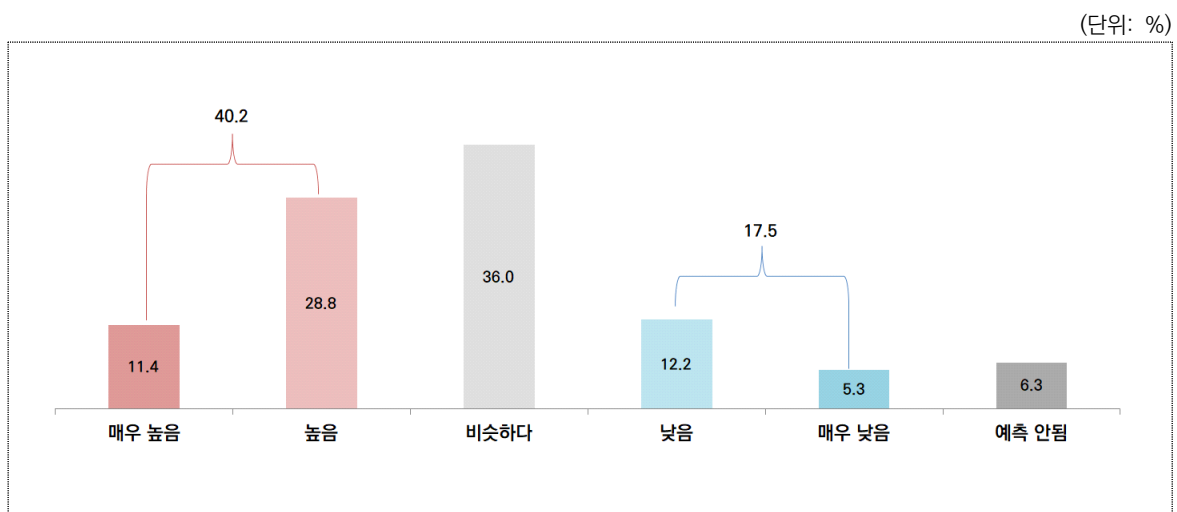
5) 2019년 4/4분기까지는 월 평균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로 조사하였으며, 2020년 1/4분기부터는 연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로 조사하였다.

### Ⅲ. 시민 관심 경제 이슈: 총선 관련 경제 영향 및 이슈

#### Ⅰ 서울시민은 총선에서 ‘산업/경제’, ‘일자리/취업’ 분야의 개선 기대

서울시민은 총선이 서울 경제 전반에 끼치는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sup>6)</sup>

- 총선이 서울시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높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0.2%인 것으로 조사
  - 총선에 따른 전반적인 경제 파급력(영향력) 정도에 대해 응답자의 40.2%가 높다(매우 높음+높음)고 답하였으며, 비슷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6.0%로 조사
  - 영향이 낮다(매우 낮음+낮음)고 응답한 비율은 17.5%에 불과해 서울시민은 총선이 서울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연 가구소득별로는 4,800~6,0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총선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과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최고(43.5%)와 최저(12.3%)를 기록해 해당 소득층 가구의 총선 기대도가 높은 편으로 조사
  - 연령별로는 50대에서 총선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과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최고(44.5%)와 최저(12.6%)를 기록해 50대에서 총선 기대도가 높은 편인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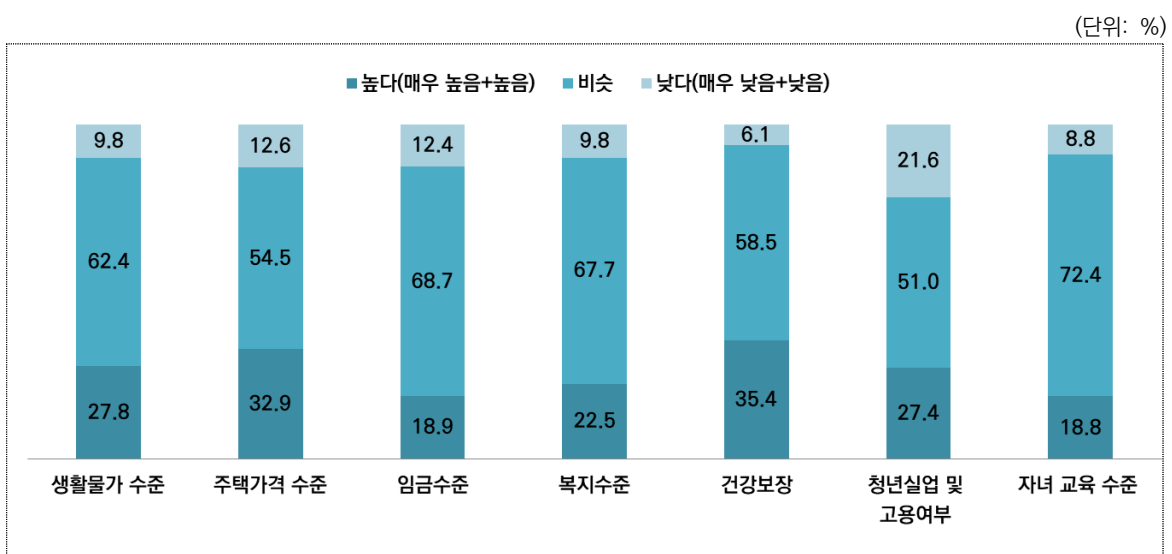
[그림 15] 총선 관련 서울시민 경제 파급력(영향력) 정도

자료: 서울지역 표본 1,200가구 대상 설문조사 중 1,200명 응답

6) 총선은 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뜻한다.

## 서울시민은 ‘건강보장’, ‘주택가격 수준’에서 총선의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

- 서울시민은 총선이 미치는 파급력이 ‘건강보장’과 ‘주택가격 수준’에서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응답
  - ‘생활물가 수준’, ‘주택가격 수준’, ‘임금 수준’, ‘복지 수준’, ‘건강보장’, ‘청년실업 및 고용 여부’, ‘자녀 교육 수준’ 등 세부 경제 부문별로 총선의 파급력 정도에서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건강보장’(35.4%)으로 조사
  - 그다음으로 ‘주택가격 수준’(32.9%), ‘생활물가 수준’(27.8%), ‘청년실업 및 고용여부’(27.4%), ‘복지수준’(22.5%) 순으로 영향력이 높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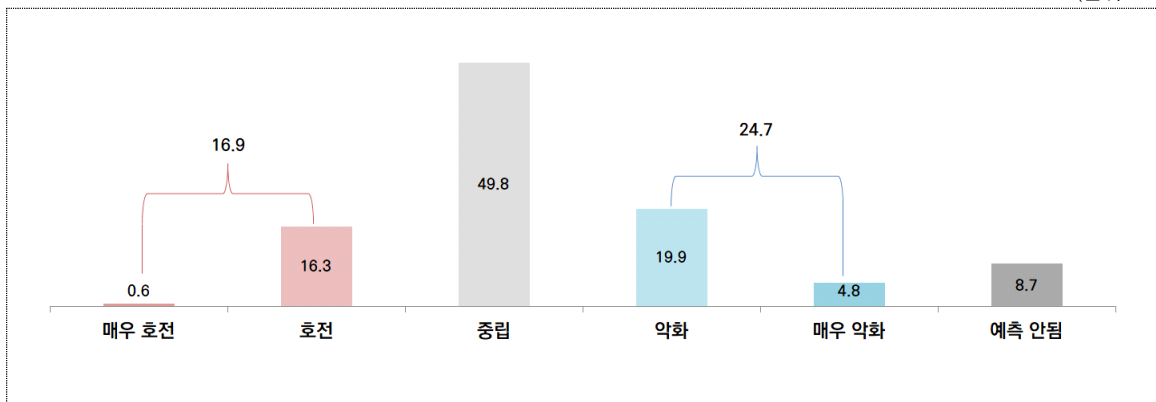


[그림 16] 총선 관련 서울시민 세부 경제 부문별 파급력(영향력) 정도

## 서울시민은 총선이 서울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방향을 호전보다는 악화로 평가

- 총선이 서울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영향력)은 호전보다 악화 방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
  - 총선의 경제 파급력 방향을 악화(매우 악화+악화)로 응답한 비율이 24.7%인데, 이는 호전(매우 호전+호전)으로 응답한 비율 16.9%보다 다소 높게 조사
  - 연 가구소득별로는 6,000~7,2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호전으로 응답한 비율이 20.2%로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가구에서는 호전 응답 비율이 10%대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
  - 연령별로는 40대에서 호전으로 응답한 비율이 21.3%로 가장 높았으며, 60대에서 악화로 응답한 비율이 30.6%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한편, 중립으로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49.8%로, 서울시민은 대체로 총선의 서울 경제 영향력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악화가 호전을 다소 앞서는 것으로 조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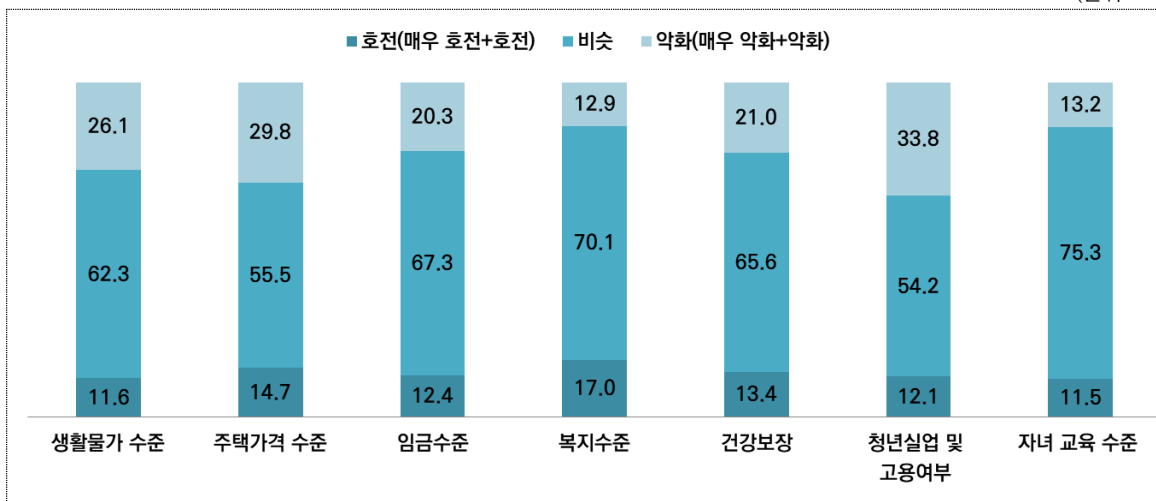


[그림 17] 총선 관련 서울시민 경제 파급력(영향력) 방향

## 서울시민은 총선이 '복지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총선과 관련하여 호전 예상 비율이 가장 높은 부문은 '복지수준'(17.0%)
  - 총선의 파급력 방향을 호전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영역은 '복지수준'(17.0%)이었으며, 그다음은 '주택가격 수준'(14.7%), '건강보장'(13.4%) 순으로 조사
  - 반면, 총선의 파급력 방향을 악화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영역은 '청년실업 및 고용여부'(33.8%), '주택가격 수준'(29.8%) 순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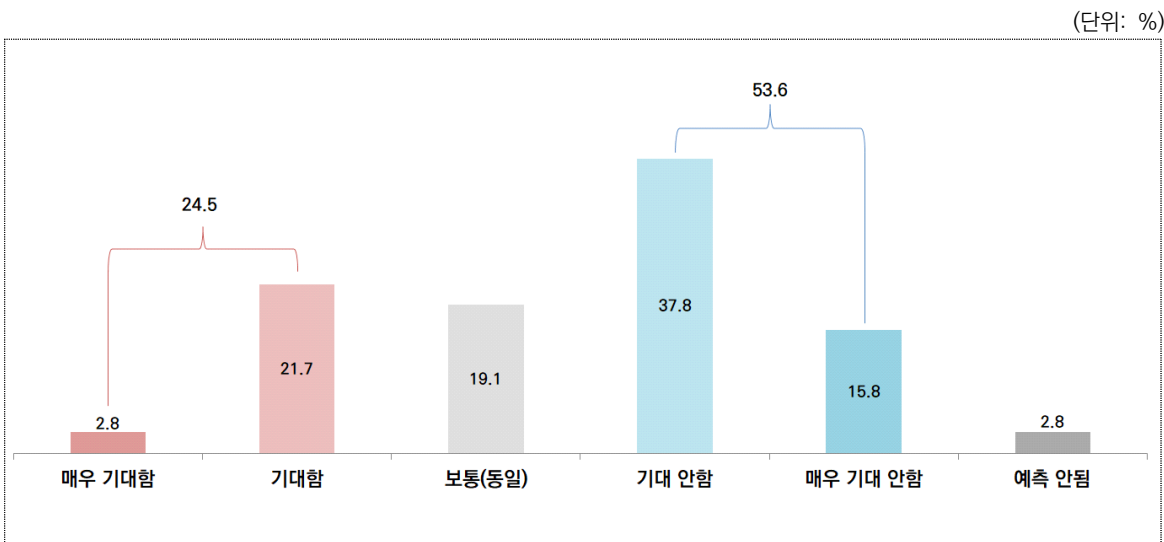
(단위: %)



[그림 18] 총선 관련 서울시민 세부 경제 부문별 파급력(영향력) 방향

서울시민은 총선에 따른 민생경제 호전을 기대하지 않는 편

- 총선에 따른 민생경제 호전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기대한다는 응답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
  - 총선에 따른 민생경제 호전을 기대한다(매우 기대+기대)는 응답은 24.5%로, 기대하지 않는다(매우 기대 안 함+기대 안 함)는 응답 53.6%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
  - 연 가구소득별로는 7,200만 원 이상 가구에서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9.6%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2.1%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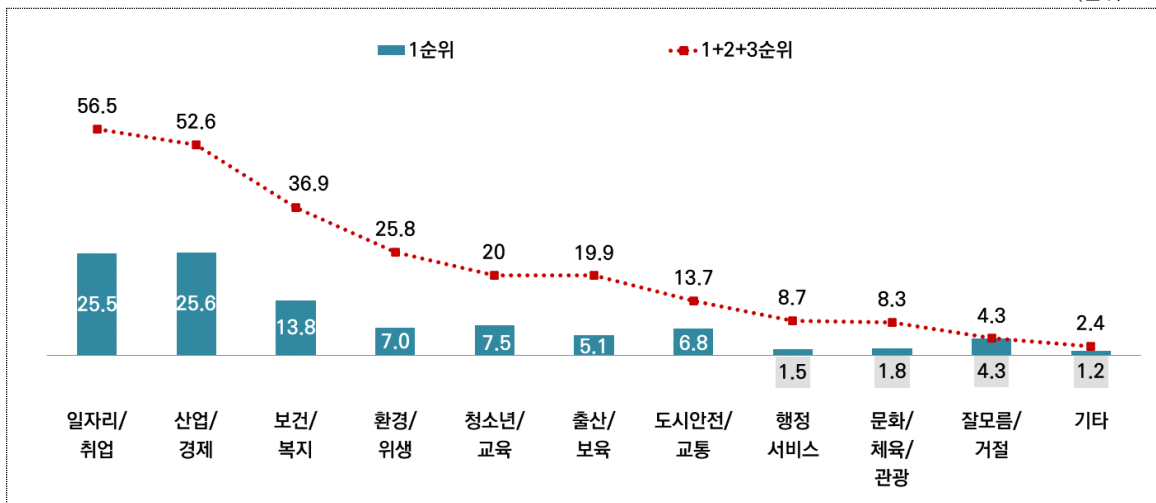


[그림 19] 서울시민의 총선 기대 정도

서울시민은 총선에 따른 개선 기대 분야로 ‘산업/경제’, ‘일자리/취업’ 등을 꼽아

- 총선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 1순위 기준으로는 ‘산업/경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기준으로는 ‘일자리/취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응답
  - 총선에 따른 개선 기대 분야를 선택하는 질문에 1순위 기준으로는 ‘산업/경제’(25.6%), ‘일자리/취업’(25.5%), ‘보건/복지’(13.8%) 순으로 응답
  -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기준으로는 ‘일자리/취업 분야’가 56.5%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산업/경제 분야’(52.6%), ‘보건/복지 분야’(36.9%) 순으로 뒤를 잇는 것으로 조사

(단위: %)



[그림 20] 서울시민의 총선에 따른 개선 기대 분야



## 부록: 2020년 1/4분기 주요 조사결과

- 이 연구는 서울 기준의 분기별 조사이며, 한국은행은 전국 기준의 월간 조사
  - 한국은행의 '2020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6.9로 전월 대비 7.3p 하락
  - 분기별 조사라는 차이점 외에 2017년 조사부터 소득 구간 등의 사례 수를 조정한 것도 결과에 반영되어 한국은행 지수와 차이

[부록 표 1] 서울지역 소비자태도지수

	소비자 태도*	생활형편		경기판단		구입태도	
		현재 생활형편	미래 생활형편	현재 경기판단	미래 경기판단	내구재 구입태도	주택 구입태도
2019년 1/4분기	93.7	87.0	90.8	68.9	82.9	82.0	69.5
2019년 2/4분기	92.7	86.0	88.8	67.8	79.5	82.4	70.0
2019년 3/4분기	92.2	84.4	88.2	66.7	76.2	84.2	71.0
2019년 4/4분기	93.3	84.9	89.1	67.0	78.9	84.6	71.9
2020년 1/4분기	82.8	73.7	85.4	47.9	67.8	78.7	52.8

\* 표준화지수 사용

[부록 표 2]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지수

	소비지출		순자산	고용상황	물가예상
	현재 소비지출	미래 소비지출			
2019년 1/4분기	114.2	95.6	94.4	68.6	148.1
2019년 2/4분기	114.8	96.1	92.6	70.4	145.7
2019년 3/4분기	111.7	94.6	92.0	71.2	140.3
2019년 4/4분기	112.6	96.1	92.9	72.8	137.5
2020년 1/4분기	101.8	89.9	95.8	64.2	129.8

이 조사는 서울지역 표본 1,200가구를 대상으로 매 분기 조사한 결과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83\text{p}$ 임(2020년 1/4분기 조사 시점은 2020년 2월 24일~3월 1일)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http://www.si.re.kr)